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국악학과 신설에 따른 건의문(안)

의 번	안 호	260
--------	--------	-----

발의년월일 : 1995. 5. 18.

발 의 자 : 김 영 휘 의원
외 5 인

1. 제 안 이 유

- 충주시는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중원문화의 요람으로써 악성 우록 선생께서 가야금을 탄주하며 제자를 가르치던 본 고장이며,
-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 국악 인재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수한 국악인 육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2. 주 요 내 용

" 별 청 건 의 문 (안) 참 조 "

건 의 문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인재양성과, 우리고장 발전에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신 귀하에게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고장 충주는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중원문화의 요람으로써 특히, 우리나라 3대 악성증의 한분이신 우륵(于勒)선생께서 가야금을 탄주하며 제자를 가르치셨던 국악의 본고장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행정기관과 문화예술단체가 힘을 합쳐 시립가야금연주단 운영, 전국 가야금경연대회 개최, 우륵당 건립추진, 국악교실 운영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도 특별활동시간 등을 통하여 가야금을 비롯한 국악교육을 실시해온 결과, 각종 국악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악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수한 국악인을 육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 문화예술발전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내 뜻있는 많은 시민들은 지방화·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것을 지키고 보존할 인재를 키우는 것은 다른 어떤 시책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우리지역의 대학에서 국악인재를 양성하여 주시기를 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악발전과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에 『국악학과』를 신설하여 주시기를 22만 시민의 바램을 한데모아 건의드립니다.

1995년 5월 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